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단기임대 규제

도시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규정 강화

환경·안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프로그램 시행
'그린 빛물 인프라' 도입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파인애플 잎을 재활용해 만든 드론 상용화 추진

도시계획·주택 취약계층용 주택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강기향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상파울루 김현아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희
바르셀로나 진광선
 박정수
싱가포르 이은주
런던 정기성
비엔나 안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시드니 정용문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단기임대 규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 도시계획·주택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주거규제를 시행. 관광객 대상 단기임대를 사전허가제로 변경하고, 월세 사용자 및 그 외 사회적·의료적 취약계층에게 보다 원활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개편

배경

- 장기화된 암스테르담市의 주거 부족 문제
 -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주거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
 - 일반적인 월세 수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는 에어비앤비가 성행함에 따라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짐
 - 관련하여 市는 에어비앤비 형태의 단기임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마련해왔음
 -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입 및 투기 목적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 수가 급감
 - 임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큰 집을 구매하여 작은 단위로 방을 쪼갬 후 임대하는 경우가 늘어남
 - 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경우 면적이 넓은 집을 구하기 어렵고,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발생

주요 내용

- 암스테르담 시민이 관광객에게 주택의 일부 및 전체를 단기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전신고하도록 함
- 市는 앞서 2020년 7월 1일부터 단기임대 허가증을 발급
 - 관광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구도심 지구 세 곳은 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음
 -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관광객에게 단기임대를 할 수 없으며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

- 1년에 최대 30박까지 임대 가능하며, 에어비앤비 등 광고 게시글에 고유 번호를 기재해야 함
 - 투숙 가능 인원은 면적과 상관없이 최대 4인이며, 모든 숙박 내역을 시청에 사전 고지해야 함
 - 허가증 없이 단기임대하거나 최대 4인, 1년에 30박 규정 및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소 4,350유로에서 최대 21,750유로의 벌금 부과 및 허가 취소 (이후 5년간 신청 불가)
-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 다수의 임차인을 받는 이른바 ‘방 쪼개기 임대’를 규제하기 위해 지역 단위 임대 상한제(quota)를 도입
 - 심사 과정에서 같은 지역 내 임대 현황을 검토하여 방 단위 임대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음
 - 4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부터 적용
 - 방 하나당 성인 한 명에게만 임대 가능. 단 배우자나 생활동반자와 같이 법적으로 결합된 경우 두 명까지 가능
 - 모든 세입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소지하여야 함
 - 주택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가구당 평균면적이 40㎡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만 방을 추가적으로 분리 가능하며¹⁾ 위반 시 벌금을 최대 21,750유로 부과
 - 이주노동자 등과 같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면서 월세를 착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 이 과정에서 퇴거 또는 계약 종료 등의 협박을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 협동조합 ‘stichting! Woon’에서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 2채 이상의 집을 임대하는 (전업) 임대인이 4년 이내에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전에 부과된 벌금의 2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여 엄격하게 규제
-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²⁾ 확보
 - 市는 중산층³⁾ 시민에게 월세 1,027유로 이하의 주택을 매해 1,670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과 주택 공급난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오히려 전체 임대주택 수가 감소한 상황
 - 市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⁴⁾를 개발하는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0%,

1) 공용계단으로 연결된 창고 및 다락방 제외 면적. 복층 및 3층 이상 단독주택에는 별도 규정 적용

2) 네덜란드 전국에 있는 300만 호의 임대주택 중 약 75%가 주택협동조합 소유이며, 이 중 최소 80%는 연소득 39,055유로 미만인 세입자에게 737.14유로 이하의 월세로 임대하여야 함. 나머지 20% 중 10%는 중산층 세입자에게 임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득자에게 임대되거나 매매 거래됨

3) 2020년 기준 연소득이 39,055~43,574유로인 계층. 매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갱신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거보조금 지급

4) 암스테르담 운하 구역을 제외한 토지의 70% 이상이 市 소유이며, 부동산 개발의 경우 장기임대 형태로 시청에 비용을 지불

- 중위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0%를 확보하는 것이 현행법상 의무화되어 있음⁵⁾
 - 市 소유 부지에 지어진 주택은 현행 15년에서 10년이 더 늘어난 25년 동안 공공 임대주택 기준이나 중위소득 기준으로 월세를 유지하여야 함
-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투자자와 개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산층 주택 개발에 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일부 적용
 - 기존에는 월세를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인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추가적으로 최대 1%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신축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에는 25년 유지 조항을 면제받아 월세를 임의 설정할 수 있음
- 2025년까지 55세 이상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2,000호 신축
 - 기존에는 교외 요양원 등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설이 폐업하면서 시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이 증가할 전망
 - 가정의, 치과, 통증의학과 등 의료시설과 체육관 및 공용 여가시설을 함께 설계
 - 일부 세대는 2인(부부)이 거주하지만 대부분 1인 가구가 입주하는 주택임을 고려하여 고독감 해소 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
 - 또한 주택협동조합 내에서 50세 이상 시민들의 공동체 생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 세대는 나이 기준 및 인터뷰 결과에 따라 신규 세입자를 선정
-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공공임대주택 순환 개선 방안
 - 市는 기초수급자, 난민, 그 외 사회적·의료적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한 긴급 공공임대주택을 매해 1,800호 분배
 - 그 중 사회적·의료적 응급 상황이 참작되어 긴급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시민은 2017년 278가구에서 2019년 531가구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초수급자나 난민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난이 악화
 - 긴급 공공임대주택 필요요건인 전입 후 거주 이력 기준을 기존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가파르게 증가하는 수요를 조정
 - 월체어 접근이 가능한 공공주택은 7월 1일부터 자택에서 월체어 사용이 불가능해 재활센터 및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선 제공⁶⁾
 - 차순위로는 월체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이를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제공

5) 토지 임대료 인하를 조건으로 도입된 2017년 개정안에서 월세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의 비율이 기존 30:70에서 80(40+40):20으로 대폭 조정됨

6) 기존에는 여타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등록 시점이 빠른 자원자부터 대기 순번에 따라 분배

<https://www.amsterdam.nl/wonen-leefomgeving/wonen/wijziging-hvv-2021/>

<https://www.government.nl/topics/housing/rented-housing>

<https://www.nu120.nl/dossiers/laurens-ivens-dit-echt-trendbreuk>

<https://www.parool.nl/cs-b3c9df09>

<https://www.parool.nl/cs-bd3719b9>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프로그램 시행

일본 교토市 / 환경·안전

교토市는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100 선언 RE Action’ 프로그램에 홍보대사로 참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법인 헤이안여학원은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학교법인이 매년 실시하는 점등 행사에 재생에너지를 사용

배경 및 목적

- 교토市 소재 학교법인 헤이안여학원(平安女学院)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목표 아래, 市가 홍보대사를 맡은 ‘재생에너지 100 선언 RE Action’(再エネ100宣言 RE Action) 프로그램에 참여
 - ‘재생에너지 100 선언 RE Action’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뜻과 행동계획을 밝히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 참여조건은 ①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 ②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 추진에 참여할 것, ③ 매년 소비전력량·재생에너지 전환율 등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 등임
- 헤이안여학원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市와 학교법인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점등 행사 ‘아그네스 일루미네이션(アグネスイルミネーション)’에 재생에너지를 사용
 - 아그네스 일루미네이션은 헤이안여학원대학 국제관광학부 학생들이 매년 주제를 정하고 학교 건물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점등 행사

주요 내용

- 헤이안여학원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점등 행사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
 - 행사 장소는 헤이안여학원대학 교토 캠퍼스
 - 이번 주제는 사람을 생각할 때 꽃이 핀다고 하는 ‘꽃 피는 산’(花さき山)으로부터 영감을 얻었고, 아그네스 일루미네이션 실행위원회 학생들이 결정

-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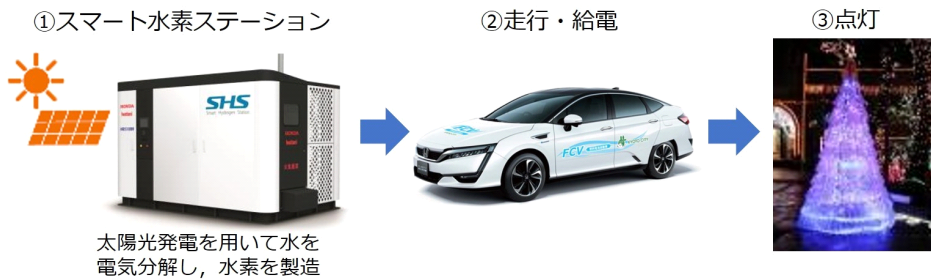


[사진 1] 2019년도 아그네스 일루미네이션

- 점등 행사를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와 연료전지자동차(fuel cell vehicle)로 재생에너지를 공급
 - 자동차를 활용해 전기를 공급한 것은 재해 발생을 막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함임



[그림 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활용한 전기 공급



[그림 2] 연료전지자동차를 활용한 전기 공급

정책 평가

- 이번 사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주며, 새로운 투자나 혁신(innovation)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탈탄소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은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 새로운 성장과 발전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
-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실현

<https://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277346.html>

<https://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265321.html>

‘그린 빗물 인프라’ 도입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미국 휴스턴시 / 환경·안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빗물 인프라’를 도입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 이는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리질리언트 휴스턴 전략’(Resilient Houston Strategy)의 일환으로 추진

배경 및 목적

- 휴스턴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시는 2014년 기준 약 3천5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온실가스 주요 배출 도시 중 하나
 - 또한 ‘하비’(Harvey) 등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
 - 이에 시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액션플랜, 2020년에는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 개발을 위한 ‘리질리언트 휴스턴 전략’(Resilient Houston Strategy)을 수립
- 시는 이 전략의 일환으로 ‘그린 빗물 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확충을 추진
 - 2025년까지 총 100개의 새로운 그린 빗물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민간 개발 사업자가 그린 인프라를 도입하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주요 내용

- 그린 빗물 인프라의 개념과 장단점
 - 그린 빗물 인프라는 도시의 녹지를 이용하여 빗물의 침투, 저류, 증발산(蒸發散),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빗물로 인한 홍수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인프라를 말함
 - 대표적인 그린 빗물 인프라에는 지붕에 녹지를 조성하는 ‘그린 루프(green roof)’, 빗물을 이용한 정원 ‘레인 가든(rain garden)’, 빗물을 저장하는 ‘레인 하비스팅(rain harvesting)’, ‘도시 숲(urban forest)’, ‘인공 습지(constructed wetlands)’, 투수성이 좋은 재질의 도로 포장, 배수시설 향상 등이 있음

- 그린 인프라의 도입으로 홍수 예방,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 공기질 및 수질 향상, 삶의 질 향상이 기대
- 하지만 비용 및 유지보수 문제, 市의 지원 부족으로 도입에 한계
- 市는 그린 빗물 인프라를 도입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세금 감면
 - 신청 대상은 전체 투자 비용이 300만 달러 이상이고, 그린 빗물 인프라 투자 비용이 20만 달러 이상인 민간 개발 사업
 - 신청서에는 그린 빗물 인프라의 상세 계획, 유지 보수 계획, 그린 빗물 인프라 도입에 따른 이익 등을 기재
 - 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나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교육 효과 등을 고려
 - 선정된 민간 개발 사업자는 진행 상황 및 결과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선정 후 약 10년간 재산세(property tax)를 감면
 - 총 세금 감면액은 그린 빗물 인프라 투자 비용을 넘을 수 없음
 - 관련 조례는 2020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년마다 재평가 예정
- 향후 계획
 - ‘리질리언트 휴스턴 전략’에 따라 향후 그린 빗물 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 프로그램 마련하고, 그린 빗물 인프라 관련 허가 승인 절차의 속도를 향상할 예정
 - 그린 빗물 인프라의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민간 개발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커뮤니티로도 확장할 계획

정책 평가

-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개발 사업자의 빗물 인프라 도입을 유도
 - 市는 그린 빗물 인프라의 도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으며, 민간 개발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 상호 이익 기대

<http://www.houstontx.gov/igd/>

<http://www.houstontx.gov/mayor/press/2020/tax-abatement-resilience-sustainability.html>

이 경 선 통신원, kylee.greenery@gmail.com

파인애플 잎을 재활용해 만든 드론 상용화 추진

말레이시아 / 환경·안전

말레이시아에서는 파인애플 잎으로 만든 드론을 개발해 농가에서 상용화를 추진 중. ‘파인애플 드론’은 매년 수확 후 버려지는 파인애플 잎을 재활용해 만든 것으로, 지속가능한 드론을 통해 디지털 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

배경

- 파인애플 잎 재활용 연구 진행
 - 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연구팀은 2017년부터 파인애플을 수확한 후 버려지는 잎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진행
 - 푸트라대학은 쿠알라룸푸르로부터 65km 떨어진 홀루 랑갓 지역의 농가에서 파인애플 잎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진행
 - 그 결과 파인애플 잎 속의 섬유를 활용해 드론용 프레임에 비롯해 내구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한 모하메드 타릭 하미드 술탄 교수는 파인애플 잎으로 만들어진 드론이 최대 1,000m 높이까지 날 수 있으며 약 20분 동안 비행할 수 있다고 밝힘

주요 내용

-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드론 활용 확대
 - ‘파인애플 드론’의 농가 활용 가능성 확인
 - 파인애플 드론은 바이오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합성 섬유로 만든 드론보다 높은 내구성을 갖고 있으며, 저렴하고 가볍다는 장점을 보유
 - 또한 작동 오류가 있는 드론을 땅속에 묻으면 완전분해될 때까지 약 2주일 정도 소요되는 등 쉽게 처분이 가능
 - 따라서 작물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수확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 파인애플 드론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
 - 파인애플 잎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전
 - 파인애플 농가는 그동안 매년 수확 후 잎을 태워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음

- 앞으로 농가용 드론을 비롯해 건축자재 등에 농업 폐기물인 파인애플 잎을 사용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



[사진 1] 파인애플 잎으로 만든 드론

<https://www.reuters.com/article/us-malaysia-drone-idUSKBN29A0YX>

<https://www.engadget.com/drones-sustainability-pineapple-malaysia-research-200222549.html>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규정 강화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도시교통

바르셀로나 시청에서는 2017년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를 실행. 2021년 1월 개인형 이동수단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왕실 법령을 통해 차량으로 분류함으로써 市도 관련 규정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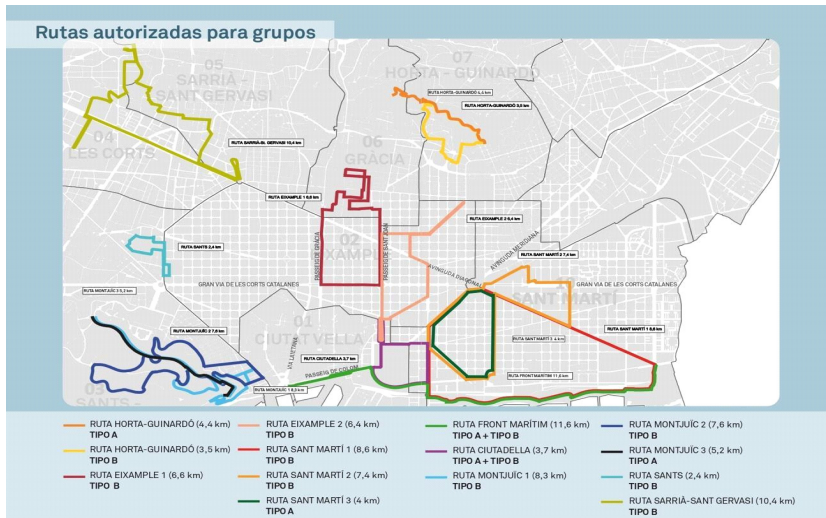
배경 및 목적

-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장에 따른 대응 필요
 -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장 및 이용량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
 - 공공장소에서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존을 위해 바르셀로나 시청에서는 2017년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 강화
 - 2021년 1월 스페인 중앙정부의 왕실 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이 차량으로 분류되어 차량과 동일한 교통 관련 규정을 적용
 - 규정 강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의 공존이 가능한 이동 및 도로안전 정책 수립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성의 강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모델 개발

주요 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 단일 시트가 장착되고, 최대 설계 속도가 시속 6~25km이며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는 하나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차량
 - 자가 균형 시스템이 없이 안장이 장착된 차량 또는 경주용 차량,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차량 및 작동 전압이 100VDC 또는 240VA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주에서 제외
- 개인형 이동수단의 분류
 - 소형 전동 킥보드, 소형 전동 플랫폼 및 전동 휠은 소형 개인형 이동수단인 A타입으로 분류
 - 중량 25kg, 길이 1m, 너비 0.6m, 높이 2.1m 이하

- 대형 전동 킥보드와 대형 전동 플랫폼은 대형 개인형 이동수단인 B타입으로 분류
- 중량 50kg, 길이 1.9m, 너비 0.8m, 높이 2.1m 이하
- 개인 용도로 사용 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규정
 - A타입의 경우 탑승 인원 최대 1명, 이용 가능 연령 16세 이상
 - B타입의 경우 탑승 인원 최대 1명, 이용 가능 연령 16세 이상, 헬멧 착용 필수, 전조 등 및 반사용 도구 설치 필수, 벨 설치 필수
- 상업 용도로 사용 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규정
 - A타입의 경우 탑승 인원 최대 1명, 이용 가능 연령 16세 이상, 헬멧 착용 필수, 사용자 등록, 보험 가입
- 그룹으로 이동 시 인원 제한 3~6명 및 그룹당 가이드 1명 동행, 개별로 이동 시 최대 2명당 가이드 1명 동행
 - B타입도 A타입과 동일한 규정 적용
 - 상업활동을 위해 그룹 단위 이동이 허용된 경로(아래 그림 참조)



[그림 1] 상업활동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그룹 단위 이동이 허용된 경로

출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내 팸플릿, 바르셀로나 시청

- 도로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규정
 -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단일 플랫폼 도로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A타입	불가능	가능 (속도 제한 10km/h)	가능 (속도 제한 10km/h)	가능 (속도 제한 30km/h)
B타입	불가능		가능 (속도 제한 10km/h)	가능 (속도 제한 30km/h)

- 차도

	속도 제한 30 차도	속도 제한 30 이상 차도	공원
A타입	가능 (속도 제한 20km/h)	불가능	가능 (속도 제한 10km/h)
B타입	가능 (속도 제한 30km/h)	불가능	가능 (속도 제한 10km/h)

- 기타 규정

- 주차 금지 구역을 제외한 주차 허용 공간에서만 주차 가능
- 가로수, 벤치, 신호등 등 공공설치물을 이용한 주차 금지

-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조치

- 위의 규정을 어길 시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100유로, 200유로, 500유로의 벌금 적용

정책 평가

-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동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모형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과 보행자의 공존 및 역할이 점점 더 중요
-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과 무분별한 상업화의 위험에 대비하여 다른 차량과 동일한 교통규정을 적용하고, 기술적인 분류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통규정이 필요
-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유연한 규제 적용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도로교통체계에 안전하게 수용함으로써 보행자와 다양한 이동수단 간의 공존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 및 2개 이상의 바퀴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관련 규정 수정(2021년 1월 2일)

<https://www.barcelona.cat/mobilitat/ca/mitjans-de-transport/vehicles-mobilitat-personal>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도로 규정 수정안 요약(2021년 1월 13일)

https://www.barcelona.cat/infobarcelona/ca/nova-normativa-sobre-la-circulacio-dels-vehicles-de-mobilitat-personal_1026696.html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왕실 법령 수정안(2020년 11월 10일)

https://www.boe.es/diario_boe/txt.php?id=BOE-A-2020-13969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취약계층용 주택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

인도 델리 NCT¹⁾ / 도시계획·주택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주도로 약 9만 세대의 다세대주택을 5년간 단계별로 공급할 예정. 가구 소득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차등 공급함과 동시에 경제적 취약계층용 주택 역시 별도로 확보

정책적 배경

- 인도의 지속적 인플레이션과 함께 주택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여 저소득층 중심 지역 주민의 집값에 대한 부담 확대로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델리 NCT 지역 내 인구는 2012년 기준 1천9백만 명 수준이며, 도시화로 인해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 안정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
 - 금리 인하 및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지역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저렴한 노동임금과 생활물가 대비 높은 부동산가격을 기록 중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공공부문 주도로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2021년도 델리 개발청 주택계획(DDA Housing Scheme)을 발표하며 96만㎡의 면적에 2025년까지 8만 9천여 세대의 다세대주택을 3단계로 나눠 건설할 예정
 -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4만 1천여 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설을 목표로 5개 구역에 8천여 세대의 주택을 각각 건설할 예정
 - 세대별 80만 루피를 원가로 총 330억 루피를 투입하여 진행할 계획
 -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만 8천 세대, 세 번째 단계에서는 3만 세대의 주택을 각각 추가 공급
- 주택 공급은 가구 소득별로 구분하여 주택 면적과 공급가격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용 주택을 별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장벽을 완화
 - 주택분양 신청을 위해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소득별로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구분하여 상이한 금액의 주택 예치금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함
 - 경제적 취약계층은 가구별 수입이 연 80만 루피 이하 또는 2만㎡ 이하의 농업용 토지 등을 소유한 지역주민으로 제한

- 지역 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 또는 슬럼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 델리 주거지 개선위원회(Delhi Urban Shelter Improvement Board, DUSIB)가 소유한 47만㎡의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
 - 델리시립공사(Municipal Corporation of Delhi, MCD)와 델리개발청(Delhi Development Authority, DDA)이 주도하여 사업 진행

정책 평가

-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 문제를 공공부문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현재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중
- 가구 소득에 따라 주택가격에 차이를 두어 실수요 구매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별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안정 지원책 시행



[그림 1] 델리개발청(DDA) 주택분양 안내문



[사진 1] 델리 나렐라(Narela) 지구 건설현장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dda-to-announce-new-housing-scheme-offer-1-175-new-flats/story-cufvFSJIE3DuxiGWxoqzNK.html>

<https://www.livemint.com/news/india/delhi-govt-to-construct-89-400-ews-flats-by-2025-11605320226001.html>

<https://www.moneycontrol.com/news/business/real-estate/dda-housing-scheme-2021-response-extremely-good-applications-exceed-number-of-flats-on-offer-says-dda-vc-6362011.html>

<https://www.pmmidiyojana.in/dda-housing-scheme/>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499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3월 22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